

등록번호 서울다-10691  
 등록연월일 포덕 154(2013)년 8월 7일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9층  
 전화:02-735-3296 / 02-732-3956  
 FAX:02-725-7718  
 http://www.chondogyo.or.kr  
 구독료:1부 1,300원, 연간 30,000원

# 천도교신문

제196호(통권591호) 포덕 163(2022)년 7월 1일(금요일)  
 발행인 : 박상중 / 편집인 겸 주간 : 주용덕 / 인쇄인 : 윤병업 / 발행소 : 천도교중앙총부



## 전국 교구장 회의 개최

6월 21일, 43개 교구 참석(온라인 17개 교구 포함)



중앙총부는 6월 21일 오후2시 수운회관에서 전국 교구장회의를 개최하였다. 교구 43(현장 26, 온라인 17)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교구장 회의는 정갑선 교무관장의 사회로 식순에 따라 주용덕 총무원장 개회사, 교령 격려사, 회의 안건 설명, 교구장 의견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무원장 개회사

교구장은 최일선에서 교무활동을 주관하고 계시는 실질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신앙 생활하는데 윤희활역할도 하고 비타민 역할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교구는 교구장님이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구장님들이 교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의 명운도 걸려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교구장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교령 격려사

제가 교령에 선임된 지 어느덧 3개월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교단을 살려보자고 집행부가 모여서 의논을 해 봤습니다. 살리는 방법으로 첫째는 교구장 중심제라는데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구장중심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여러가지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첫 교구장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게 이 조직이 잘 유지해 가려면 첫째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서로 할 얘기가 있을 때 서로에게 얘기를

나누어서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때에 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소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논의하실 때에 각 교구마다 자기가 교구에서 하고 싶은, 각 교구에서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전부 적어서 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겠다고 하는 해결책까지를 제시해 주세요. 그러한 것들을 총무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또한 다음 교구장회의에서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합시다. 천도교는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천도교를 어떻게 해서든 발전시키고 꽃을 피워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안건 상정

1. 교구 활성화 방안
2. 교구별 포덕교화 계획
3. 교역자 연수교육
4. 기타.

### 안건 설명(총무원장)

#### ▶ 교구 활성화 방안

1. 권역별 합동시일을 통해 교구간에 교류
2. 지역별 천도교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
3. 인일기념일 전국대회개최(설교대회, 중창대회)
4. 시일설교자 지원 확대
5. 설교집 발간 - 좋은 설교는 원고를 총부로 모아서 설교집으로 배포

#### ▶ 교구별 포덕교화 계획

1. 가정포덕 방법으로 자녀가 원거리에 떨어져 살면 해당 교구에 시일 보도록 조치
2. 휴면교인을 다시 교회에 나오도록
3. 유소년 청소년에 대한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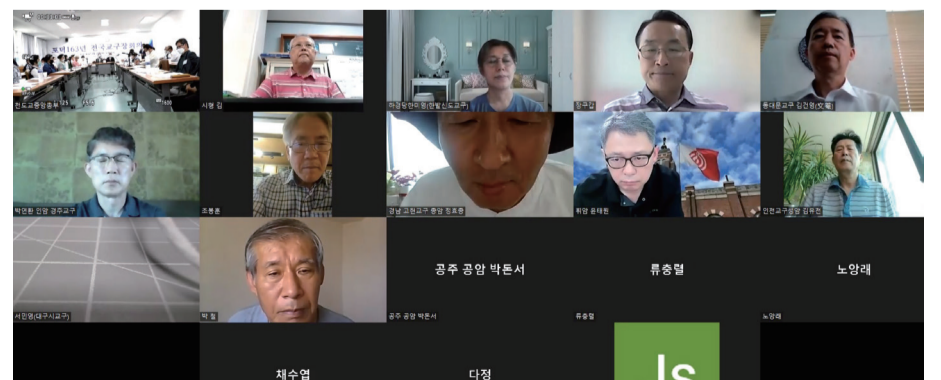
#### ▶ 교역자 연수교육

1. 교헌 규정에 대한 교육연수
2. 교리 교사에 대한 연수
3. 지도자 리더십에 대한 연수
4. 지역별 천도교 사업계획 발굴 및 공유

#### 교구장 의견 발표(건의내용)

경전연구회 활동, 수련의 생활화, 지역

별 천도교 행사 공동주관, 천도교 문화를 꽃피우는 방안 마련, 신앙통일을 위한 방안 연구, 행사 위주보다는 신앙 중심의 교단 운영, 각종 기념일에 대한 날짜 재고, 장례문화 시스템 구축, 천도교신문과 인터넷신문(유튜브) 활용, 용담검무 공연 확대, 천도교를 홍보하는 방안 마련, 지역 합동시일 장려, 공을기 달기와도가표 디자인 변경, 교구장 연수계획, 교구장 회의 정례화 등에 대해 의견을 냄.



사진설명 위: 교구장회의 회의실전경 아래: 온라인(줌) 참석 교구장 화면

# 제2차 종무위원회 개최

6월 21일, 추경예산안 등 의결



포덕 163년 추경예산을 위한 종무위원회가 6월 21일 개최되었다. 이날 오전 11시 수운회관 907호 회의실에서 열린 종무위원회는 주용덕 종무원장의 개회사, 박상종 교령의 격려사에 이어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논의 및 의결하였다.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무원장 개회사>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집행부에서는 종무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했었습니다. 신집행부에서는 종무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단의 모든 일들을 다 논의해야 되고 아울러서 교구장 권역별 대표 위치에도 있으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역할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점에서 교단을 위하는 마음으로 항상 고민하시고 소통을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교단발전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오후 교구장회의까지도 원활하게 회의가 잘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교령 격려사>

두 번째 맞이하는 종무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뵈니까 제가 힘이 막 납니다. 지금 우리 종무위원회는 종무원장을 비롯해서 천도교의 교화 종무행정을 다 작업해 나가는 그런 뜻 깊은 역할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도 소통을 해 가며 원팀을 이루면서 잘 해오고 있지마는 앞으로 더더욱 뜻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합일된 마음으로 교회에 이바지할 일을 찾아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교구장 중심제를 공약으로 하였는데 종무위원회에서는 오늘 교구장중심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천도교 발전에 획기적인 제도가 되게할까 이러한 관점에서 깊이있는 토론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결사항>

#### 1. 포덕163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 천도교신문 발행비 (6월~11월) 반영 ▲36,000,000
- 교구활성화비(합동시일식 지원비, 설교자 파견비) 증액 ▲10,000,000
- 기념식 예산 증액 ▲5,000,000
- 신인간사 지원비 전년도 감액분 원상복구 ▲18,000,000
- 연합합창단 지원금 증액 ▲2,000,000
- 인쇄비(규정집, 교역자수첩) 증액 ▲10,000,000
- 당직비, 포상비 증액 ▲4,000,000
- 회의비(교구장회의 등) 증액 ▲10,000,000
-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사업 국비보조 자부담금 미반영분 ▲7,000,000
- 동학관련 지방행사 지원 및 대외활동 증액 ▲8,900,000 등

### <기타논의사항>

- 신문 발행부수를 줄이고 인터넷신문과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
- 종학대학원 예산 확충 필요
- 천도교 정체성 문제로 천일기념일 예산이 타 기념일에 비해 많아야 한다
- 교역자수첩 색인부 필요, 내용 업데이트, 좀 더 크게 만들 것

# ‘수운심법 연원중흥 성금’ 모금

천도교연원회는 수운대신사의 심법을 계승하는 용담연원의 최고 정신지도 기관으로서, 천도교 교헌에 『수운심법의 체화』, 『교화방안 심의』, 『수도포덕의 여행』, 『신앙통일과 규모일치』 등 교단의 중추적인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포덕 163년 『수운심법연원중흥원년』으로서의 의미를 담아, 100년 중일변의 교단 발전과 대도중흥을 위한 수운심법 연원정립, 연원계승, 연원실천을 목적으로 한 『수운심법연원중흥 성금』을 다음과 같이 모금하기로 하였습니다. 희망 찬 천도교의 미래를 위해 『수운심법연원중흥 성금』 모금운동에 대한 동덕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모금 목적: 수운심법 연원중흥

- 연원정립 연원계승 연원실천으로 100년 중일변

### □ 모금 방법: 교구별, 연원별, 단체별 모금, 개인 직접입금(연원명기) 및 기타

### □ 입금 계좌: 천도교중앙총부 우리은행 1005-802-398624

### □ 성금 문의: 천도교 연원회(02-732-3954)

### □ 사용 절차: 『목적성금사용 규정』에 따라 집행 및 결산

### □ 사용처:

- 수운심법 연원정립, 연원계승, 연원실천을 위한 100년 중일변 미래 향한 지속적인 연원 중흥 사업 추진 등 (세부사항은 천도교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 수운심법 연원중흥 성금내역

|     |      |      |           |        |     |      |         |
|-----|------|------|-----------|--------|-----|------|---------|
| 김산  | 통일포  | 마포교구 | 1,000,000 | 장효선    | 경원포 | 삼선교구 | 300,000 |
| 김성환 | 시원포  | 용담교구 | 1,000,000 | 박완주    | 순의포 | 진주교구 | 100,000 |
| 이정희 | 부안포2 | 대전교구 | 1,000,000 | 연원회의장단 |     |      | 70,000  |

# 동민회, 평화통일 월례강좌 시작

- 6월 29일, “동학혁명과 블록체인혁명: 새로운 통일이론의 구상”



동학민족통일회(상임의장 노태구)는 매일 ‘평화통일’ 문제를 주제로 강좌를 시작하였다.

6월 첫 강좌 김상일 한신대 명예교수의 “동학혁명과 블록체인 혁명: 새로운 통일이론의 구상”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6월 29일 오후 4시, 수운회관 907호에서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강의가 시행되었다. 줌 강의에 동참한 회원까지 모두 30여 명이 참여하였다. 김 교수의 강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893년 3월 보은취회에는 19개 포의 대접주들이 모두 참가하였고, 동학군이 기포한 것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다. 이러한 기포가 블록체인과 그 구성 구조가 같은 이유는 하나와 여럿의 조화인 그 노시스 혹은 한얼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수 만의 관군들과 양과 왜들은 이 동학군을 호시탐탐 침략 꾀멀시킬 기회

만 노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해커 공격자들이 네트워크를 침공해 파괴하려 한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려면 모든 거래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정보를 파괴해야만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외부 해커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 동학군들도 블록체인과 같이 성을 지킬 수 있었던가? 우금티에서 해커들의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로 힘이 무너지고 말았다. 1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동학군의 기포 정신을 블록체인을 통해 되살려내야 할 것이다.”

한편, 7월은 노태구(경기대 명예교수) 동민회 대표상임의장 “한국의 평화통일과 동학사상”, 8월은 권태명(천도교 선도사) “수운과 울곡의 기(氣)철학 연구: 통일철학의 모색으로” 등의 강좌가 계획되어 있다.

## 권영세 통일부장관 교령사 예방

- 7월 1일, 남북간 종교협력 적극 권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월 1일 11시 교령사를 예방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남북간 종교 분야 교류협력이 정부 중심의 교류협력에 추가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남북간 종교협력을 적극 권장하고 싶다”고 하였다.

박상종 교령은 천도교에서 추진 계획 중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였다. 천도교 남북교류 추진 사업은 1. 동학농민혁명 남북 공동기념식 봉행 2. 천도

교 경축기념일 남북 공동 진행 3. 31운동 기념, 개천절 공동 행사 4. 문화예술공연 공동 개최, 천도교 기관지 신인간에 북측 글 수록 논의 5. 동학혁명 공동 학술대회, 남북 유적지 상호 답사, 중국 화성의숙 공동 조사 6. 평양에 천도교 대교당 건립 지원 등이다. 이에 대해 권영세 장관은 “천도교가 북한에 카운터파트가 있어서 계속해서 교류협력을 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고인이 되신 발달장애인’ 추모기도식

-사회문화관·인권위원회 주관



천도교사회문화관·인권위원회 주관,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 주최로 ‘고인이 되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천도교 추모기도식’이 6월 29일 11시 중앙대교당에서 열렸다.

김영희 사회문화관 관서의 집례로 시작된 기도식은 이미에 사회문화관장의 추모사에 이어, 탁미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 정순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금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중구지회장, 한혜승 전국장애인부모연대서울지부 동작지회장, 임은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부평지회장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추모사에 이어 분향, 심고, 폐식하였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5월 17일 전남 여수시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60대 여성이 30대 조카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5월 23일 서울 성동

구에서는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같은날 인천 연수구에서는 60대 어머니가 중증장애가 있는 30대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5월 30일 경남 밀양시에서는 발달장애가 있는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6월 3일 경기 안산시에서는 발달장애 형제의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발달장애인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기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 삼각지역 1번 출구와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정부에 ‘발달장애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천도교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도 추모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설

### 전국 교구장 회의를 마치면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되어간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교단 발전을 위해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침체한 우리 교단이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서는 중앙총부는 물론, 지방 교구가 되살아나야 한다.

중앙총부는 우선 내실을 강화하고, 신앙 중심의 교단, 지방 교구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구를 책임지고 있는 교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인들이 교단의 일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교단을 걱정하는 것은 교인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하지만, 이보다 교구 운영을 총괄하는 교구장을 중심으로 교단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중앙총부와 지방 교구는 소통을 통해 교구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하고, 지방 교구는 교구장을 중심으로 교화업무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경전 공부와 수련 활동 등을 위한 소모임을 결성해서 작은 실천부터 해 나가자. 혹여 자생능력이 부족한 교구는 지역 교구와의 연대를 통해 연합활동을 강화하고 저변 확대에 정성을 다해 나가자.

교단 중흥을 위해서 총부와 지방 교

구의 소통은 중요하다. 전국에서 교구장 회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왔지만 지난 집행부 3년간 한 번도 교구장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그동안 학수고대했던 교구장 회의가 지난 6월 21일 14시에 중앙총부에서 개최되었다. 신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모두가 바랬던 교구장 회의가 개최되어 다행스럽다.

교구장은 최일선에서 교구 운영 주체가 되는 실질 책임자이다. 그리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윤활유가 되고, 비타민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구장이 어떻게 교구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우리 교단의 미래가 달려 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교구장은 서로 미루는, 꺼리는 자리가 되었다. 개인의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하는 교구장 자리는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안타깝다. 교단에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날 회의는 ①교구 활성화 방안 ②교구 포덕 사업계획 ③교역자 연수계획 등에 대해 교구장 한 분씩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총부는 교구장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큰 밑그림으로 하여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일신 또 일신해야 할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번 전국 교구장 회의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교단이 활력을 얻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 6·15공동선언 22주년 자주평화통일대회

- 6월 15일, 중앙대교당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는 6월 15일 오후 7시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22주년 자주평화통일대회’를 갖고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6·15해외측위원회 손형근 위원장은 물론 오랜만에 연대사를 보내온 6·15북측위원회(위원장 박명철)도 한결같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남북공

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6·15남측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발부터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천만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확장억제와 전략자산 전개, 한미군사연습의 확대는 남북대화의 입구 자체를 막는 일일 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 전쟁위기를 부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도 동학혁명에 대한 연구 학술발표회 개최

6월 17일,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정정숙)는 6월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근현대사미술관 담다 2층에서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2022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하나로 경기도에서 처음 발족한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한국의 미래를 여는 미래 정신으로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후원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국민의례와 참가자 소개, 정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주제 발표 및 토론하는 순서로 각 2명씩 모두 6명이 참가해 열띤 분위기 속에 정정숙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애초 2시간 30분 동안 예정됐던 발표회는 진지한 발표와 토론 및 방청객의 수준 높은 질문, 답변으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4시간 동안 이어졌다.

먼저 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과 동학공원 개원식에 전국의 기념사업회와 함께 했다"며 "이번 학술발표회를 계기로 경기도지역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하반기 경기도와 충청지역 동

학 유적지를 탐방하고, 매년 학술발표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제1 주제는 '경기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박한용 박사(민족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가 발표했다.

박한용 박사는 "1894년 당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학농민혁명'은 시기, 각자 처지에 따라 다양하게 불렸다"며 "역사적 의의, 성격, 규정, 용어 등에 대해서는 1980년대 이후 진보적 연구자들에 의해 천착됐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정원영 박사(용인시정연구원장)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이차적으로는 올바른 민주 정신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 주제는 '경기지역 동학농민혁명과 용인'을 성주현 박사(천도교 상주선도사)가 발표했다. 성 박사는 "경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와 충청도에 비해 왕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지역 동학군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지역 동학군은 진원지인 호남지역이나 주요 활동무대였던 호서지역보다 왕국이 있는 경성과 인접한 지리적인 관계로 관의 지목이 심해 많은 제약을 받았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호서

지역 동학군 영향을 받았고, 9월 총기포 이후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했다.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지역까지 확대됐다. 일차적으로 호서지역, 이차적으로는 호남 지역과 연합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용인지역 활동은 김량, 서이면 도춘 등에서 보인다. 당시 죽산부사인 이두황에 의해 진압됐다"고 밝히고, 말했다. 용인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량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용익, 정용전, 이삼준, 이주영, 주성칠 등이 지도자"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인 박용규 박사(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는 용인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새로 밝힌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최시형의 9월 총기포령 이후 경기지역 동학농민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발표자가 경기지역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와 충청도에 비해 왕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단정했는데, 반론이 있다. 경기도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보다 규모나 활동면에서 뒤지지 않았다. 경기도 33개 군현의 반에 가까운 15개 군현에서 활동이 확인된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등의 질의에 토론이 이어졌다.

제3 주제는 '동학의 개혁 사상과 용인

시'를 임형진 박사(경희대 교수, 동학학회 회장)가 발표했다. 임 박사는 "용인시와 개혁 사상에서 동학에서 주장하는 시천주, 인시천, 인내천 사상은 우리 민족이 아득한 옛날부터 천신 숭배 사상의 신앙이 동학에 이르러 창조적인 모습으로 승화했다. 후천개벽과 지상천국에서 개혁의 첫 발자국은 동학의 출발이었다. 정치적 개혁인 인간 평등의 이상사회로 인간 평등은 경제적 평등인 구민, 그것이 무빈의 민중 경제 즉, 민생주의의 사상으로 재화됐다.

용인학에서의 개혁 사상에서 최근 용인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재조명해 미래 용인의 청사진을 모색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수용과 조화를 통해 발전해 온 표현이 용인학에서 나오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상사회 용인시를 기대하며 예서는 용인의 지명이 1414년 용구현과 처인현을 병합하면서 개칭한 명칭이다. 어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 처인, 조광조를 필두로 한 기호학파의 중심지인데, 한국 사회에서 기호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덜 알려지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용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안한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정숙 회장은 이날 발표자와 토론자 6명을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 처음 공개된 차도주 강수 초상화

이운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은 지난 6월 18일 차도주 강수의 초상화를 기증받고 공개하였다. 이 초상화는 김모씨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것으로, 존영 왼쪽 밑에 한자로 '차도주 강사원'이라 적혀있다. 강사원은 강시원, 강수, 강방준으로 등으로 불렸다.

한편, 강수 차도주는 1863년 동학에

입도하여 수운 최재우 대신사의 지도를 받았다. 대신사 순도 후 2세 교조 해월 최시형 신사의 수제자가 되어 동학재건운동에 힘썼다. 1871년 이필제가 주도하였던 영해교조신원운동에 해월신사와 적극 가담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872년 동학 교단의 제2인자격인 차도주직을 해월 신사로부터 임명받았다.

1879년 동학의 최초 교단사인 『최선생 문집도원기서』를 집필, 이듬해에 간행하였다. 1880년 『동경대전』, 1881년 『용담유사』 간행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1893년 2월 서울복합상소를 뒤에서 총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94년 9월 동학혁명군을 인솔하여 참여하였으나, 11월 청주전투에서 체포되어 순국하였다(글:사진/이운영)



# 민족종교 12개 교단 성지순례 및 세미나 개최



6월 15~17일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이하 민종협, 회장 김령하)가 주최하고 민종협여성회(회장: 박차귀)가 주관한 12개 교단 성지순례 및 세미나가 경남 통영시 욕지면 국도(國島) 청우일신회 본부에서 열렸다.

민족종교 12개 교단(태극도, 청우일신회, 천도교, 증산법종교, 증산도, 원불교, 순천도, 수운교, 선교, 대순진리회, 경천신명회, 경정유도)의 이사와 중견교역자를 비롯한 관계자들로 구성된 순례단은 성지순례를 통해 민족종교간 의례와 교리를 이해하고 종교간 화합과 상생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매년 회원 교단의 성지 한 곳을 정해 순례하며 해당 교단의 교리와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진리 등을 서로가 알아보며 소통하는 자리를 갖자는 취지이다. 올해는 민종협 회장의 교단인 청우일신회(靑羽一新會)를 방문했다.

서울, 부산, 대전에서 전세 버스로 출발한 일행은 12시쯤 통영 시내 식당 주차장에 집결, 점심을 먹고 1시 30분 배에 탔다. 날씨는 쾌청하고 바다는 잠잠하였다. 국도는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에 있는 남쪽 끝 섬이다. 풍랑주의보가 수시로 발령되어 배가 못 들어가는 날이 많다고 하는데 다들 복 많은 사람이라고 서로 격려하며 국도(國島)로 출발하였다.

3시경 청우일신회 본부가 있는 국도에 도착, 4시에 회관에 모여 청우일신회 김

령하 총원장의 환영사와 청우일신회 소개를 들었다. 청우일신회는 강증산을 상제로 모시는 증산계열의 종파로 1988년에 남해 국도에 정착하여 섬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절벽 같은 바위섬의 선착장, 섬 곳곳에 난 좁은길과 안전난간, 울창한 나무와 꽃을 보면 이섬에 많은 애정과 정성을 쏟았음을 알 수 있다. 교당을 비롯 각종 기도실과 회관 등도 모두 교인들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감탄이 나온다.

오후 8시부터 본행사가 시작되었다.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에 이어 김령하 (사)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의 인사말, 각 교단 대표와 (사)겨레얼살리기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고 본행사의 메인인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민족종교여성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박차귀회장(민종협 여성회 회장, 천도교 부산시교구장)이 기조연설을 하였다. 기조연설이 끝난 뒤 화합과 상생의 퍼포먼스가 있었고, 이어서 각 교단을 대표해서 한 사람씩 발표했는데 천도교에서는 이미애 교화관장이 ‘오십즉여심-사인여천-인내천과 천도교’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여 타 교단의 주목을 받았다.

다음은 박차귀 민종협여성회장(천도교)의 기조연설중 발췌한 내용이다.

## ■ 한국민족종교에서의 여성의 윤리관

윤리관을 일괄하면, 자아와 타자가 상생하며 서로 윤택하고 평화적이고 행복한 삶을 함께 영위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조선시대 여성의 윤리관은 ‘남존여비’라고 하여, 사회적 지위 및 권리 면에서 남자를 우위에 두고 여자를 열위(劣位)에 두었다. 이와는 달리 한민족 민족종교는 여성도 남성처럼 주체자로 보고 남녀 존중 사상을 주요한 핵심으로 두는 데 그 특성이 있다.

예를 들자면 천도교 2세 교조이신 해월 최시형 신사께서는 “부인은 한 집안의 주인이나. 이제부터 부인 도통이 많이 나리라”고, 하였고, 이것은 “일남구녀(一男九女)를 비한 운이니, 지난 때에는 부인을 압박하였으나 지금 이 운을 당하여서는 부인 도통으로 사람 살리는 이가 많으니” 하고 가르침을 주었다. 이는 남녀 관계는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 즉 평등을 말씀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남녀의 관계는 평등적임을 말씀하셨고 동학사상은 여성을 삶의 적극적인 주체자로서 구현하고, 여성의 권리를 옹호했다. “모든 사람은 한울님을 모셨다”는 시천주 사상, “사람을 한울과 같이 섬겨야 한다”는 사인여천 사상은 동학혁명 당시 여성의 재가 허용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곧 한울이다”라는 인내천 사상도 사람을 한울님(신)처럼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성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운동은 서양을 모델로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서양보다는 바로 우리 민족종교에 나타난 여성존중 사상이 한국사회에서 더 바람직한 윤리관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 민종협 여성회가 나아가길 방향

(사)한국민족종교 협의회 여성회가 창립된 지도 어언 17년이 되었다. 사람에 비유하면 영유아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다. 여성회에서는 다각도로 사업을 계획해서 민족종교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2005년 창립된 여성회는 그동안 꾸준히 1년에 한 번씩 1박 2일 수련대회 및 각 회원 교단 성지 순례 등, 여성회 한마당과 단합대회, 민족문화 연수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오늘의 이 행사도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제 그동안 축적된 응집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며 대외적인 행사에도 참여하고 민족종교 여성회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히 앞장서야 할 것이다.

종교인의 절반 이상은 여성들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민족종교 각 교단을 면면이 살펴보면, 여성들이 교단에서 구성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단 활동 참여에는 적극적이 못한 것 같아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이는 교단 자체의 시스템을 시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남성들의 의식 전환과 여성 자신들의 책임도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 시대와 짝하여 나이갈 때 쇠퇴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 어두움이 지나면 반드시 밝음은 온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겸손하고 배려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 힘을 합쳤을 때 에너지는 배가되며 힘은 더욱 커지게 된다. 여성도 교단활동에 적극참여해야 한다.



국도 선착장과 청우일신회 본당



기조연설중인 박차귀 민종협여성회장(천도교)



청우일신회 영대(靈臺)에서 종교의식 체험

## 서울교구, 유적지 순례

-의암성사 순도100주년 맞아 청주 의암성사 유허지에서



서울교구(교구장 윤태원)는 6월 11일 토요일 유적지 순례를 실시하였다. 이번 유적지 순례는 의암성사 순도 100주기를 맞아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의 의암성사 유허지 일대를 둘러 보았다. 의암성사 생가, 유허비 등을 살펴보고, '애국지사 일곱 분의 상'이 서 있는 문의문화재단지 부근에서 점심식사 후 대청호 일대를 둘러보고 서울로 귀경하였다.

한편, 유적지순례 특성금으로 소금주 5만원, 양운석 3만원, 주선원 3만원, 김인환 3만원, 노은정 2만원, 박성기 2만원, 이순옥 2만원, 서울교구여성회 증편 1말, 주선자(청주교구장) 탄산수 80개 등이 답지하였다.

## 하윤수 동덕, 부산시 교육감 당선

-회암 하준천 선생의 후손, 부산시교구 시일 참석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자는 6월 19일 시일을 맞아 부산시교구에 참석하였다. 하 당선자는 당선 직후 당선소감을 통해 "선전을 펼쳐주시 김석준 후보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석준 교육감님의 좋은 정책들을 이어받아, 더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교육이 우리 부산의 미래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진보, 보수 성향의 후보간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부산시 교육감선거에서 중도보수 성향인 하윤수 교육감 후보가 최종 승리, 8년만에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부산 교육을 이끌게 됐다.

하 당선인은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어렵게 자랐

다. 그렇다보니, 학교에 가는 게 꿈이었다. 나에게 학교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 등대와 같았다"하고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학교에 꼭 가고 싶다. 정말 학교에 머물고 싶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 당선인이 말한 독립운동가는 회암 하준천 선생으로 회암선생은 남해지역에서 천도교 포덕을 조직화한 인물로 한때 남해는 '천도교 왕국'이란 이름이 붙었고 지금도 이러한 교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남해출신으로 부산 교대총장,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교육전문가이다. 교육감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 시원포 김성환 도정 취임식

-6월 5일, 경주 용담교구에서



6월 19일 용담교구에서 시원포 도정(명암 김성환)의 취임식이 있었다.

서울교구 명암 이갑식 선도사의 집례로 봉행된 취임식은 청수봉전, 심고, 성주문 3회명송, 신임 도정 취임사, 용담교구 원직 도침수여식, 축사, 천덕송, 마치는 심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성환 신임 도정은 취임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인 포덕에 대하여 교인

각자가 위기감을 느끼고 솔선수범하여 포덕에 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내년 시원포 100주년 기념 행사에 서울에서 가수도 초청하여 크게 열겠다"고 밝혔다.

성금 현황  
신임 도정 명암 김성환:550만원  
교인 성금: 195만원  
용담정 성금 별도

## 청년회, 6월 온라인 정기 수련 가져

-6월 5일, 주용덕 총무위원장과 청년회 활동 등 대담



천도교청년회(회장 이재선)는 코로나 상황에서 시일식이나 수련 참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작년부터 매월 첫 주 시일 저녁 정기적으로 온라인 수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신앙심 회복과 천도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온라인 수련은 청년회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온라인 회의 시스템 줌(zoom)을 통해 참여 가능하고, 청년회 집행위원들이 집례를 맡고 있다. 특히 163년 올해부터는 새해를 맞이하며 주문공부와 함께 교리와 교사를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2월부터 교단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리, 교사, 수행, 문화 등을 주제로 공부의 시간을 더하여 수련 전 1시간 동안 이치공부 시간도 진행하고 있다.

6월에 '천도교 즐겁게 신앙하기'를 주제로 용암 주용덕 총무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눠주었다. 주용덕 총무위원장은 교구청년회 활동 시절 일화도 나누며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7월에 오암 박길수 '모시는사람들' 대표, 8월에 부암 정덕재 감사원장님을 모시고 교리교사 공부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선 회장은 온라인 수련이 비대면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존에 있던 물리적 거리도 줄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천도교 청년회는 여러 다양한 활동들 중 이처럼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것이다.

## 남해동학유적지 순례행사



남해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김환용)는 6월 12일 일요일 '임진성' 전적지, '여장협 접주의 가묘' 자리 등 남해지역 동학유적지 순례 행사를 가졌

다. 내년의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회원들간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동학의 유적들을 직접 둘러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글:사진/박옥섭)

## 송정 해수욕장 일대 정화작업

- 6월 19일, 선구교구 자원봉사

선구교구(교구장 박철)는 6월 19일 시일식을 마치고 인근 송정해수욕장 일대에서 정화작업을 실시하였다. 정화작업에 앞서 오랜만에 선구 교구 관할 상주 전교실에서 시일식을 봉행하였는데, 이날 시일식에는 송범두 도정도 참석하여



오랜만에 전교실의 옛 면모가 되살아난 듯하여 매우 고무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시일식 후 송정해수욕장으로 이동한 교인들은 환경과 생명의 실상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실천하는 일차적 행위로부터 시작된다는 염원을 담으며 약 2시간에 걸쳐 정화작업을 실시하였다. 중요한 것은 정화작업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더욱 많이 버려지는 플라스틱 등 유해 물질로 인해 손상되는 생명 문제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게 되었다.

마음 쓰는 문제 곧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벌어지는 소비 문제가 환경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천지 부모의 은덕을 잊지 말아야 할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대내외 정화작업의 필요성을 자각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행사를 하면서 각 교구의 인근 지역에 있는 일반인이 많이 찾는 명소를 정화(특히 인체에 해로운 플라스틱류 수거 작업)하는 것도 활용 가능한 포덕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며 제안해본다.

(글:사진/ 박철)

## 진주시교구, 장뜨기

진주시교구(교구장 정의적)는 6월 12일 반성면 원동 수덕사에서 시일식을 봉행하고 장뜨기를 하였다.

교구에서 만든 메주로 장을 담그었고, 이날 간장, 된장으로 분리하는 '장뜨기'를 하였다. 진주시교구는 매년 재래식 간장, 된장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된장, 간장 주문은 진주시교구여성회(010-6555-1037)로 하면 된다.



## 2022년 UN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 합동위령제

-6월 24일, 부산지역 7대종단 합동



부산종교인평화회의(BCRP: 대표회장 정산, 불교)는 6월24일 오전11시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관에서 'UN군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합동위령식은 박차귀 부산시교구장(BCRP공동회장 겸 사무총장)이 주관하고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이날 위령식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100여명이 참여하여 유엔공원에 안장된 11개국 2,300여 명의 UN군 전몰장병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하고 거룩한 희생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한 참전전몰장병용사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각 종단별 추도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평화합창단(불교, 원불교, 천도교 연합)이 '천개의바람'과 '비목'을 추모

곡으로 합창하였고, 천도교에서는 예암 고봉섭(BCRP 실행위원, 부산시교구 교화차장)이 집례하여 개식 - 심고 - 주문3회병송 - 추념사(정신당 박차귀 공동회장) - 천덕송합창(위령의 노래/부산연합합창단 함께) - 마치는 심고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천도교는 연합합창단과 교구 주직 및 동덕 20명이 참석하였다.

올해는 장마철에 접어들어 비가 오는지라 실외 위령탑 앞에서의 행사와 상징구역 순례 일정을 변경하여 추모관에서 봉행하였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BCRP)는 부산의 7대종교(기독교, 불교, 성공회,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성직자들로 이루어진 연합회로 합동위령제를 20년째 매년 봉행하고 있다.

## 종학대학원 1학기 종강



사진설명 위 서울본원, 아래 부산본원

종학대학원(원장 이상면)은 6월 18일 강의를 끝으로 포덕 163년도 1학기 수업을 마감하였다. 서울본원은 이상면 종학대학원장의 특강으로, 부산본원(분원장 성강현)은 성강현 교수의 '도원기서'와 송봉구 교수의 논학문 강의로

마감하였다. 부산본원은 강의 후 종학대학원 교수 무처 서소연 차장이 종학대학원 운영방침을 소개하였고, 이후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회식모임을 가졌다.

## 포덕 163년 연원회 하계수련회 안내

연원회는 대신사의 심법을 계승하여 교인들의 신앙심을 고양하는 주체기관으로서 교단중흥이라는 교인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매년 하계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원회는 다음과 같이 금년도 하계수련회를 개최하면서 천도교 연원회 중흥을 위한 '연원회 역할 정립 및 실천 방안 세미나(토론)'와 '연원지도자를 위한 포덕 리더십 강의', '용담검무 강의 및 시현'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교단발전과 연원회의 중흥을 위하여 포덕 163년 연원회 하계수련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포덕 163년 7월 10일(일)~16일(토)
- 2) 장 소 : 용담수도원 및 용담교구
- 3) 준비물 : 경전, 염주, 필기도구, 세면도구, 마스크 등
- 4) 수련비 : 연원회에서 수련비 지원 (교통비는 본인 부담)

※ 7월 10일(일) 오후 5시까지 용담수도원에 참석자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총부, 의암성사 순국 100주기 추모 특별전

-6월 9일~9월 30일,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에서

**주최**  
서울시 강북구  
천도교중앙총부

**주관**  
민족문제연구소  
근현대사기념관

**후원**  
국가보훈처  
동학혁명정신선양사업단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3·1운동을 이끈 민족지도자

# 의암 손병희

한울님과 함께

포덕 163(2022)년 주말수련

## 함께 수련해요

- 장소 : 우이동 여성교육 복지관 (강북구 삼양로 173길 101-6)
- 7월 1일 ~ 10월 29일 (8/5~6, 9/9~10 휴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 토요일 오후 3시, 1박 2일
- 문의 : 여성회사무실02-732-6867, 포덕부장 010-5681-3601
- 대상 : 모든 교인 및 천도교에 관심있는 일반인
- 참가비 : 없음, 식사제공

천도교여성회중앙본부 회장 박징재 심고

## 종학대학원 야외 수련회 개최

- 일시 : 7월 16일 9시 30분  
 집결 : 서울 강북구 4.19로 114 (근현대사기념관)  
 관람 : 근현대사기념관 '의암성사 순국100주년' 특별전시회  
 탐방 : 북한산 순례길 코스  
 수련 : 봉황각에서(수련지도: 김춘성 선도사)  
 토론 : 종학대학원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 및 토론(발제: 강정환)  
 - 참가 문의 : 02) 720-3020 , 010-9671-2484 종학대학원 교무처

## 제18회 천도교 어린이와 학생작품전 모집

- 전시일정: 포덕 163년 8월 14일(시일) ~ 21일(시일) 8일간
- 전시장소: 수운회관 4층 전시실(예정)
- 출품대상: 유치부, 초,중,고등부 학생
- 작품주제: 어린이 눈에 비친 신앙생활 모습
- 작품규격: 35cm x 25cm / 소재, 재료 : 자유
- 제출기한: 포덕 163년 7월 23일(토)까지
- 제출처: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경운동) 교당관리실 앞
- 기재사항: 작품 뒤에 작품명, 소속교구, 학년(나이), 이름, 전화번호

## 서울교구 합창단, 합창단원 모집

서울교구에서는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노래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서울교구 소속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서울교구여성회, 남해 마늘, 적색 양파즙 판매

- 남해 마늘 1자루(10kg), 105,000원(배송비 포함)  
주문 : 소금주 조직부장(010-9904-1793)
- 적색 양파즙(150개), 65,000원(배송비 포함)  
주문 : 박태량 여성회장(010-3135-2708)